

문서번호 1801사무03	 <p>역사에 정의를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p>	<b>공문</b>	
T. 02-786-4370 E. cheju4370@naver.com		담당	김원 홍보팀장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2동 301호		사무처장	박진우
수신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박찬진 (전결)	참조	
시행 2018년 01월 23일		접수	
제목 4370신문 배포 협조 요청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에 감사와 경의를 보냅니다.
- 전국의 2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17년 3월 결성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4.3항쟁 70주년을 맞아 4.3의 전국화를 통해 아픈 역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추진하고 인권·평화·통일의 4.3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4370신문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에서 25개 자치구 구청으로 배송, 각 자치구 구청에 일부 비치 및 424개 행정동 주민센터로 배포하여 주심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합니다.

-아래-

- 협조사항 : 4370신문의 배포
- 배포대상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구청 및 424개 행정동 주민센터.
- 배포수량 : 각 자치구청으로 300부 배송 시 일정수량 비치 후 각 주민센터에 분할하여 배포. 25개 자치구×300부. 총합계 : 7500부.
- 배포방식 : 예)종로구 18개 행정동이 속해 있음으로, 300부/19(구청비치용 포함)하여 1/19에 해당하는 부수(약 15부)를 구청 비치 및 각 주민센터로 배송.

끝.

상임공동대표



김영주(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용현(한국전쟁유족회 공동대표),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윤경(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선(제주4.3연구소 소장)

